

새벽기도회 묵상(새벽 5시 30분)

12월 15일(월) 디모데후서 1:1-8 / 찬송 435장 (딤후 1-4장)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12월 16일(화) 디도서 1:1-16 / 찬송 320장 (딛 1-몬 1장)

지도자의 자질과 성도의 영적 분별

12월 17일(수) 히브리서 1:1-4 / 찬송 27장 (히 1-7장)

아들을 통해 주신 완전하고 최종적인 계신

12월 18일(목) 히브리서 8:1-13 / 찬송 80장 (히 8-13장)

생각과 마음에 새겨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

12월 19일(금) 야고보서 1:1-11 / 찬송 397장 (약 1-5장)

시험을 이기는 인내, 지혜를 구하는 믿음

12월 20일(토) 베드로전서 1:1-12 / 찬송 508장 (벧전 1-5장)

산 소망으로 사는 천국 나그네

향기로운 예물

◆온라인예금 : 국민은행 202-25-0008-396 (예금주: 관악중앙교회)

십 일 조 권혁임 김동열 남주범 김성일 김성학 김원석 박영희 김은영 김재협 김창환
마츠모토 전미경 한진호 문현숙 박노수 박영국 고윤 신영자 심재우 양덕남
여정례 양일식 유경자 이기돈 최영자 이청자 정신광 정정식 지규분 진태선
최경묵 한복순 한세영 무명

감 사 강성범 고윤 권혁임 김광인 김명일 함선예 김연희 김영희 김옥순 김은숙
김진용 송다슬 김지호 김한숙 문청자 이경아A 민문화 박혜운 박훈수 백은경
서세연 이태근 소영숙 송숙자 김효진 김효정 양덕남 여수연 유명희 이강은
이동수 이상규 이옥진 이인옥 이정권 이제학 이종문 변미자 이청자 이한근
장지은 전세홍 전태준 정가희 정하원 정신광 정현 조남희 조옥순 진솔
진태선 최경묵 윤한선 최복우 최소라 최승호 최영복 김정선 최정옥 최형용
최은영 송명숙 허영주 이숙미 홍기순 황예숙 허민수 황인우 무명2

(청년교회: 문소윤 이지우 임사빈 임준희)

선교헌금 권혁임 김성학 양덕남 정범수 최경덕 무명

구역헌금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7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4구역 16구역
17구역 18구역 19구역 20구역 24구역 26구역 새가족구역

장학헌금 김성준 김성학 김종관 **생일감사** 김순희 김창숙 진태선 황종인

구제헌금 황인우 **꽃꽂이감사** 박선영

새벽감사 박혜영

일천번제 권혁임 박종현 김현오(1일~7일) 최영복 김정선 최소라 최승호

◆ 주일 오전 11:30 이후에 입금된 현금은 다음주에 명단이 나옵니다.

수요구역예배 - NO.50 (2025.12.17)

찬송 : 115장 / 다같이 기도 : 맡은이

말씀 : 누가복음 2:14-20 / 영광과 평화의 완성

기도제목 나누기 현금 : 50장 /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본문>

14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의 묵상>

1.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광과 평화의 완성입니다(눅 2:14).

하늘의 보좌에는 천천 만만의 천군이 있습니다(계 5:11-12). 구주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천지에 올려 퍼질 찬미를 불렸습니다. 찬미의 내용처럼 하늘의 영광을 무시한 채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땅의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인류에게 큰 기쁨이며 복음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였듯이 이제는 모든 성도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2.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눅 2:20).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과 모든 사람에게 본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게 여겼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도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시대의 목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과 기도>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혼돈과 분주함 가운데 살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만을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이제는 목자들처럼 항상 깨어서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시대의 모범적인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읽기: 12월 15일 ~ 12월 20일>

요일	월(15)	화(16)	수(17)	목(18)	금(19)	토(20)
성경	딤후 1-4	딛 1-몬 1	히 1-7	히 8-13	약 1-5	벧전 1-5
찬송						

※ 「관악중앙의 만나」는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정답을 적어 제출해주시면, 채점 후 다시 돌려 드립니다.(다음카페 주보란에도 제공됨)